

김정은 시대 북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구성 및 대외관 분석

이 상 균* · 최 희** · 김 은 진***

- I. 서론
- II. 개정 지리 교육과정의 편제와 위상 변화
- III.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세계지리 내용구성 특성
- IV.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북한의 대외관
- V.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핵 이슈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의 지리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대외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개정된 북한의 세계지리 학습내용은 초급중학교 수준에서는 가까운 지역 및 국가를 다루고, 고급중학교 수준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 및 국가를 다루는 등 내용구성의 계열화가 고려되었으며, 둘째, 학습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연환경과 경제적 측면이 대응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세계지리 학습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북한 당국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세계지리 내용은 천연색 시각자료가 대폭적으로 수록되

었는데, 이는 교육발전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선정된 8개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요컨대, 북한의 세계지리 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을 북한과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의 측면에서 양분하게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리교육, 지리 교과서, 세계지리, 경제발전, 대외관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1저자
** 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교신저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공동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까지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북한의 핵문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개방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핵개발 노선을 택하면서 한반도는 핵 위기 국면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북핵 문제는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였으며, 북한은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도 점차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에 대해 서방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¹

미국에서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2018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경색 국면을 지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약식의 3차 회담이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정은의 집권 이후의 북한 내부 변화와 그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는 국제사회의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북한에서는 가장 먼저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2012년도에는 11년제(1-4-6) 의무교육을 12년제(1-5-3-3)로 바꾸는 학제 개편

¹ 북한은 유엔 안보리 성명에 반발하여 북미 대화 국면동안 자제하고 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완료되었고, 2013년도부터는 국가 교육과정도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북핵 이슈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북한의 대외관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권 및 교육당국의 대외적인 관점과 교육철학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서방 세계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의 대외적 관심과 성향이 지리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대외관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13년 개정되고, 2014년에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간된 고급중학교 2학년용 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내용체계, 내용구성 방식, 학습자료, 그리고 학습활동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 지리교육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남상준(1993)², 손용택(1993)³으로 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다가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3년 개정 교과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교과서 관련 연구는 임선린(2017)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료 접근의 한계로 초급중학교 1학년 조선지리와 고급중학교 1학년 지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에 그쳤다. 이어서 김민성·김진숙·박수련(2017)⁵은 교육과정 문서체계, 교수목적 및 목표, 성취기준, 교과서 집필 원칙 등의 측면에서 개정 지리 교육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상균·권정화(2017)⁶는 개정된 북한 지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변화 방향과 내

² 남상준,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³ 손용택,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⁴ 임선린, “2013년 간행 북한 지리 교과서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⁵ 김민성·김진숙·박수련, “북한의 3013년 개정 지리교육과정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5권 3호 (2017).

⁶ 이상균·권정화, “김정은 시대 북한 지리 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내용구성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5권 3호 (2017).

양구성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는 입수하지 못하여 연구내용에서 누락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어서 이상균·최희·임은진(2017)⁷은 영토와 영역, 그리고 독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013 개정 지리 교과서를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세계지리)를 사례로 북한의 대외관 또는 세계관을 분석했던 연구는 한봉희(1993)와 손용택(2004)의 연구가 전부이다. 한봉희(1993)⁸의 연구는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를 최초로 분석한 것으로부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1978년에 북한에서 출판된 교과서와 1980년에 일본 조총련에서 출판된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출판 시기 및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게재되는 시점(1993)간에 불일치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손용택(2004)⁹은 북한 교과서에 반영된 대미관을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교과서가 2001년에 발행된 것이어서 현재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2014)는 기존의 세계지리 교과서와는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세계지리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 지형도 만들기’, ‘자연재해 방지활동과 환경보호’, ‘우리가 속한 세계’와 같이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지리 내용은 마지막 장에 한정되고 있다. 세계지리 내용도 ‘아시아주’와 ‘세계의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 일부의 국가들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지리 교과서에서 세계지리 내용의 축소 및 다른 내용과의 혼합된 구성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체 지리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개입된 어떤 원칙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대외관이 개정 전 교과서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와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지리교육의 접점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 연구는 북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개정된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 반영된 북한의 대외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⁷ 이상균·최희·임은진, “2013 개정 북한 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17).

⁸ 한봉희,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⁹ 손용택, “남·북한 지리 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 북미관,” 『지리학연구』, 제38권 3호 (2004).

II. 개정 지리 교육과정의 편제와 위상 변화

이 장에서는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전후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구성체계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를 통해 개정된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의 편제 및 위상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지리교육 시수 감소 요인분석

본 절에서는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지리 관련 수업시수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기존 학제는 1년간의 유치원,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2012년 개정 학제는 초등교육이 1년이 늘어나고, 6년의 중등교육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류하였다. 1960년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는 중등교육과정에 지리가 ‘자연지리’, ‘세계지리’, ‘조선지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83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지리’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개정 전후 지리 과목 수업 시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1996년 교육과정에서 지리과 편제에는 주당 2시간씩 배당되어 전체 320시간이 행해졌다. 2005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저학년(초급중학교) 지리의 수업 시수가 210시간(도시), 350시간(농촌)이었고, 중학교 고학년(고급중학교)은 90시간(도시), 118시간(농촌)이었다. 그런데,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급중학교 조선지리 102시간, 고급중학교 지리 81시간으로 시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표 1〉 북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등학교 지리 과목 수업시수 변화

단위: 수업시수(시간)

구분	과목	2003년		2013년
		도시	농촌	
중학교 저학년/초급중학교	조선지리(지리)	210	350	102
중학교 고학년/고급중학교	지리	90	118	81

출처: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38~44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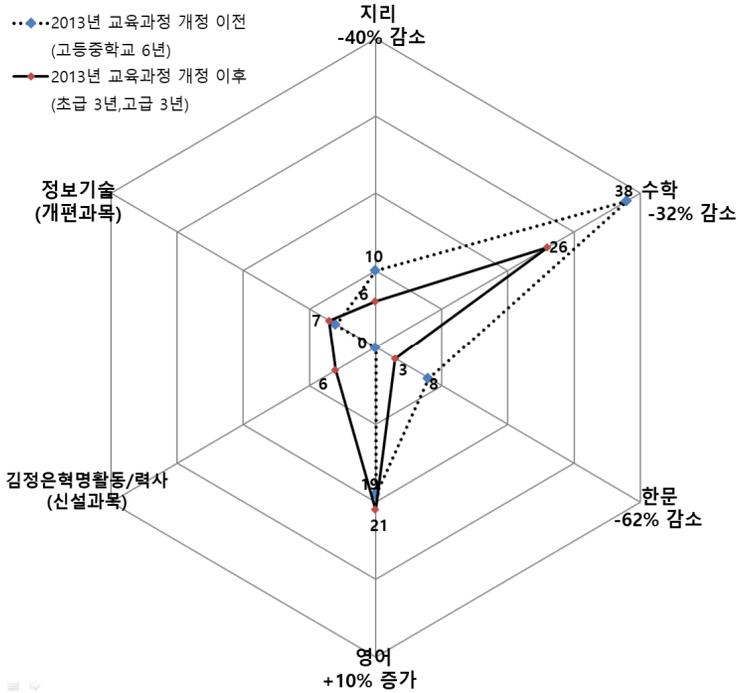
지리 과목의 시수 감소는 2013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다음의 세 가지의 측면으로 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김정은 관련 교과목 신설로 인한 지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소이다. 정치사상 과목의 비중 증가는 김정은 혁명활동/력사 과목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정치사상 과목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이며, 고급중학교의 경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현행당정책, 사회주의 도덕/법으로 구성된다. 김일성 관련 과목과 현행당정책, 사회주의 도덕/법의 수업시수는 유지 상태이고, 김정일, 김정숙 관련 과목의 시수는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1). 정치사상 과목의 비중은 특히 초급중 학교에서 늘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초기라 할 수 있는 초급중학교 시기에 정치사 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지리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지구과학 영역의 분리로 인한 시 수 감소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지구과학 교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지리과목에서 다루어 왔었는데, 2013 개정을 통해 지구과학 관련 내용의 일부가 자연과학 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지리과목의 내용구성 및 분량에 영향을 미쳤으 리라 판단한다.¹⁰

¹⁰ 남한에서도 50년대 중반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즉, 50년대 중반까지 '자연지리와 지 구과학' 관련 내용은 지리과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과목에 포함되어 학교지리의 한 영역으로 존재했었는데, 과학과에 '지학'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리교육에서 가르쳐지던 '자연지리 및 지구 과학' 내용은 대부분 과학과의 지학 과목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결국, 자연지리와 지구과학 관련 내용의 상실로 인해 학교지리의 위상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안중욱, "국가교육 과정에서 지리교과 내용체계의 역사적 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 98~ 119).

〈그림 1〉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 주당 수업시수 증감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자연과학’과 ‘정보기술’, ‘기초기술’ 과목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다. 초급중학교에서 ‘정보기술’, ‘기초기술’ 과목이 신설되고 고급중학교에서는 개정 이전의 컴퓨터과목에서 ‘정보기술’ 과목으로 개편 되고, 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주 실습과 산업생산 공정 이해에 초점을 둔 ‘기초기술’ 과목으로 개편 하였다.¹¹ 2013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개별 과목의 전체 수업시수 대비 비중 증감을 살펴보면, 초급중학교의 경우 ‘영어’가 증가하고 ‘정보기술’이 추가되었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자연과목이 7%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 과목이 눈에 띄게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초급중학교의 경우 체육이고, 고급중학교에서는 력사와 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¹² 요컨대,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어 제2외국어와 정보기술의 강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리과목의 수업 시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¹¹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44.

¹² 위의 논문 p. 44.

교육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강조된 최초의 담화는 노동신문(2012년 4월 19일자) 기사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짊어지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로 확인되며,¹³ 교육개혁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담긴 담화는 노동신문(2014년 9월 6일자) 기사 ‘세계적인 교육발전의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 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¹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지리교육에서 세계지리의 편제와 비중

2013 개정 중등 세계지리의 학교급별 도달기준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초급중학교 조선지리의 도달기준 중에서 세계에 관련된 내용은 1학년에 ‘세계의 대륙과 대양을 지도에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2학년에 ‘중국, 로씨야, 몽골, 일본의 위치를 지도에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3학년에 ‘동남아시아의 자연과 경제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2> 2013 개정 중등 세계지리 도달기준

구분	초급중학교(조선지리)	고급중학교(지리)
학년	1학년	-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주의 자연, 경제, 인문지리적 내용을 지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시아주를 학습하면서 교과서, 지도, 기타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른 대주를 자체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자학습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 동부아시아와 5개 나라들을 학습하면서 다른 지역과 나라들의 자연, 경제, 인문지리적 특징을 종합화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	-

¹³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노동신문』, 2012.4.19.

¹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2014.9.6.

〈표 3〉 2013 개정 전후 지리 교육과정 내용구성 변화

구분	2005년	2013년	구분	
고 급 학 생 이 비 교 학 생 이 비	1 학 년	1. 우리들이 사는 지구 2. 날씨와 기후 3. 육지우의 물 4. 육지길면의 모양과 변화 5. 지구 우의 자연대 6. 지도	1. 나의 고향 1-1. 고향에 대한 이야기 1-2. 고향에 대한 관찰, 견학 1-3. 고향의 략도 1-4. 고향주변의 군돌 2. 내가 만든 <지구> 2-1. 내가 만든 <지구> 2-2. 잃어버린 하루 <u>2-3. 땅이 넓니, 바다가 넓니?</u> 3. ...으로 가보고 싶다. 3-1. 삼천리 3-2. 다 가보고 싶어 3-3. 나도 올랐네 3-4. 지도우에서의 여행 3-5. 나의 계획	1 학 년
	2 학 년	1. 우리나라의 국토 2. 우리나라의 지형 3. 우리나라의 기후 4.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 지하수 5. 우리나라의 바다 6. 우리나라의 식물과 동물 7. 우리나라의 지하지원	1. 봄부터 겨울까지 1-1. 어느 계절이 좋은가 1-2. 사계절이 왜 생길까 1-3. 서로 다른 기후 2. 자연은 길들이는 것만큼 2-1. 자연재해 2-2. 자연의 보호 및 개조 3. 우리나라의 특산, 우리지방의 특산 3-1. 우리나라의 명산물, 특산물 3-2. 명산물, 특산물 찾기 3-3. 우리지방의 명산물, 특산물 4. 우리나라 바다와 주변나라들 4-1. 우리나라 바다 <u>4-2. 우리나라 주변나라들.</u>	2 학 년
	3 학 년	<u>1. 아시아주</u> <u>2. 유럽주</u> <u>3. 아프리카주</u> <u>4. 북아메리카주</u> <u>5. 남아메리카주</u> <u>6. 오세안주와 랑금지방</u>	1. 나도 할 수 있다. 1-1. 1mm는 10t 1-2. <좋은비>와 <나쁜비> 1-3. 직접 재해보자 1-4. 우리지방 사람들 2. 우리지방을 한눈에 보려면 2-1. 정확한 지도를 만들자면 2-2. 보다 생동하게 2-3. 완성된 지도 3. 지도와 위성사진 조사 3-1. 자연지도와 위성사진 조사 3-2. 행정구역도 조사 3-3. 교통운수망도 조사 <u>3-4. 우리나라 주변지역 동남아시아</u>	3 학 년
	4 학 년	I. 우리나라 지방 II. 우리나라 1. 서북지방 경제배치 2. 동북지방 1. 공업배치 3. 중부지방 2. 농업배치 4. 동남지방 3. 운수배치 5. 서남지방 4. 대외무역	제1장 우리지방의 암석과 지형변화 제1절 암석과 지형조사 제2절 지구길면의 변화 제2장 우리지방의 날씨와 물자원 제1절 날씨 제2절 우리지방의 물자원 제3장 우리지방의 환경보호 제1절 환경문제와 환경보호 제2절 환경보호활동설계와 실천 제4장 지구와 달 제1절 지구의 형성 제2절 지질시대 제3절 달의 운동 제4절 미세기	1 학 년
	5 학 년	1. 지구의 형성과 진화 2. 지구의 구조와 운동 3. 지구길면의 변화 4. 대기와 날씨 5. 바다와 바닷물의 운동 6. 환경보호 7. 지구상의 자원과 보호 8. 지도	제1장 우리지방의 지형도만들기 제1절 높이조사 제2절 강과 호수조사 제3절 지형도 및 지형모형 만 들기 제2장 자연재해방지활동과 환경보호 제1절 자연재해방지활동 제2절 환경보호 <u>제3장 우리가 속한 세계</u> <u>제1절 아시아주</u> <u>제2절 세계의 나라들</u> <u>부록1. 대주별 나라이름과 수도</u> <u>부록2. 세계의 주요 지리적 대상</u>	2 학 년
	6 학 년	-	제1장 우리나라의 자연 제1절 지리적 위치와 국토의 크기 제2절 지형 제3절 기후와 생물 제4절 강과 호수, 지하수 제5절 바다 제6절 자원 제2장 우리나라 경제 제1절 공업 제2절 농업 제3절 운수 제4절 지리정보기술과 지식산업 제3장 우리지방의 미래 제1절 우리지방의 경제발전전망 제2절 우리지방의 국토관리사업의 전망	3 학 년

고급중학교 2학년의 도달기준 중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시아주의 자연, 경제, 인문지리적 내용을 지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주를 학습하면서 교과서, 지도, 기타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른 대주를 자체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자학습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동부아시아와 5개 나라들을 학습하면서 다른 지역과 나라들의 자연, 경제, 인문지리적 특징을 종합화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같다.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에서는 ‘조선지리’ 과목으로 1, 2, 3학년에 걸쳐서 세계에 관한 도달기준이 하나의 항목씩 언급되어 있어 분량이 미미한 대신에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급중학교 1학년은 세계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학년이며, 세계의 대륙과 대양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2학년에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의 위치를 지도에서 짚도록 하며, 3학년에 이르러서는 동남아시아의 자연과 경제특성을 지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 2학년은 주로 지도를 이용한 위치 확인에 머물러 있다면, 3학년은 지도상의 위치를 바탕으로 자연과 경제적 특성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에서는 세계지리 내용이 주로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초급중학교 수준에서는 대륙과 대양의 지도상 위치 확인, 동북아시아(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범위까지 다루고 있으나 고급중학교 수준에서는 아시아주 및 기타 대륙별 주요 국가들에 관한 내용까지 확대된다.

2013 개정 고급중학교 2학년의 세계지리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구성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정 전에는 중학교 3학년에서 세계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학습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급중학교 2학년에 관련 내용을 편성하였다.

예컨대, 개정 전 북한의 지리교육은 지리를 처음 배우는 중학교 1학년과 마지막 학년인 5학년에서는 지구과학 내용이 세계지리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교 2학년에서는 국토의 자연환경이, 중학교 3학년에서는 대륙별 지역지리 학습이 구성되었고, 4학년에서는 국토지리를 다루었다. 반면, 개정 교과서는 대부분의 학습내용이 향토로부터 시작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초급중학교 1학년은 향토의 약도를 공부하고 지구의의를 통해 세계지리를 배우고, 지도를 가지고 국토를 답사하는 형식이며, 초급중학교 2학년은 향토지리 스케일에서 계절과 기후를 학습한 후, 국토지리 내용이 구성된다. 초급중학교 3학년은 향토를 배경으로 강수량 측정

및 지도제작 실습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급중학교 1학년은 향토를 사례로 자연지리 내용이 구성되다가 세계지리 스케일에서는 지구과학 내용으로 확대된다. 고급중학교 2학년은 고급중학교 3학년은 국토지리 스케일에서 자연환경과 경제활동 내용이 구성된다.¹⁵

개정된 교과서는 대부분의 학습내용이 향토지리로 시작되며 기존의 자연환경 위주의 학습내용 구성방식에서 벗어나 인문지리, 환경, 실습 위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개정 전후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 방식 및 체제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Ⅲ.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세계지리 내용구성 특성

1. 자연환경과 경제발전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세계지리 내용구성

고급중학교 2학년 지리 과목에서 제3장 ‘우리가 사는 세계’ 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지리 학습이 시작되는데, 단원명 바로 하단의 첫 번째 도입부에서 북한의 애국가 구절인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을 받들어 ~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를 제시함으로써 조국의 경제적 성장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개정 전 중학교 3학년 지리(세계지리) 교과서 머리말에서 ‘다른 나라 경제를 학습하는데서 그 나라의 자연부원, 경제구조, 경제발전 전망을 자료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강화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¹⁶ 반면, 2013 개정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지리학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학의 하나입니다.’에 이어서 ‘조선혁명을 잘 하려면 우리나라의 지리뿐아니라 일반지리와 세계지리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한다’와 같이 ‘김정일의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세계지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 개정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세계지리 내용과 경제적 측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선혁명을

¹⁵ 이상균·권정화, “김정은 시대 북한 지리 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내용구성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5권 3호 (2017), pp. 90~91.

¹⁶ 명용범, 『지리(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5), p. 2.

¹⁷ 지국철 외,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위하여 지리는 반드시 필요한 과학이고, 조선혁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계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과서에 수록된 국가들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본문에서 다루지고 있다. 개정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연환경과 경제적 측면이 대응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환경-경제적 측면-문화적 특성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개정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주된 특징 중 하나이지만, 내용구성의 관점이 경제발전 모색과 관련된다는 것은 더 주목할만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그림 2). 3장의 첫 번째 절의 내용은 대단히 소략하게 다루어진 반면,¹⁸ 두 번째 절부터는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집필진이 의도하는 바가 내용상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세계의 나라들' 소단원에서는 대륙별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총 8개국(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쿠바, 미국, 브라질)에 관한 내용을 27쪽에 걸쳐 기술하였으며, 학습내용은 이들 국가의 자연환경과 경제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8개국에 관한 학습목표에는 '8개 나라들을 학습하면서 임의의 다른 지역과 나라들의 자연, 경제, 문화생활의 특징을 찾고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도달기준에서 제시한 '자학습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부분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개정 전 보다 학습 내용과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자학습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국가에 관한 학습이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¹⁸ 3장의 제1절 '아시아주'에 관한 소단원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주별자료'가 본문도 없이 총 11쪽에 걸쳐 마치 부록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각 대륙에 대한 리뷰의 성격처럼 각 대륙별 전면지도의 형태로 'OO주 정치지도' 1면, 자연, 인문에 해당하는 사진자료 2면으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오세안주와 광극지방'으로 다루어졌던 극지방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다. 수록된 학습자료 중 삽화는 없으며, 오직 학습활동을 꾸미는 노트모양의 글상자, 한반도지도형상 위의 돋보기모양, 콤팩스 모양, 물음표 아이콘만 제시되었다.

〈그림 2〉 개정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기술된 자연환경-경제 관련 사례

- 
- 아시아주의 자연 및 경제적 특징에 대한 표를 완성하시오. (46쪽)
 - 동북지방의 지형, 기후조건이 경제발전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60쪽)
 - 중국의 자연과 경제에 대한 글을 지어 발표하시오. (60쪽)
 - 일본에는 현대공업발전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많지 못하고 류황과 석탄을 비롯한 일부 지하자원이 조금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대외 의존률이 높다. (61쪽)
 - 해당 경제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들을 찾아 연결하시오. (66쪽)
 - 프랑스는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발전되어 서유럽에서 중요한 농축산물수출국으로 되고 있다. 그 원인을 자연 조건과 결부하여 찾아보시오. (70쪽)
 - 우의 그림과 글을 통하여 에짚트의 경제부문들을 지적하시오. (74쪽)
 - 아스완언제의 건설은 nil강하류지역의 자연환경에 어떤 긍정적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해보시오. (74쪽)
 - 쿠바는 세계적인 사탕생산 및 수출국이다. 사탕수수재배에 유리한 자연조건은 무엇인가? (76쪽)
 - 세계인민들이 미국을 세계식량위기를 조장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78쪽)
 - 미국경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80쪽)
 - 브라질고원에는 쇠돌, 망간, 우라늄, 석탄, 보크사이트 등이 많이 묻혀있으며, 수력자원과 산림자원은 세계적이다. 기계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으며 커피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81쪽)

출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한편, 소학교 ‘자연’ 과목의 도달기준에서는 환경, 생물 다양성, 이용과 보호 등을 통해 환경지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¹⁹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지리에서도 ‘자연’과 ‘환경’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관련 내용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고급중학교 2학년 세계 지리 내용은 자연스럽게 주요 국가들의 자연환경 조건과 경제적 측면에 관한 구조로 학습내용을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지리교육에서 아무리 자연환경과 환경보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세계지리 내용을 주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고급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의 앞부분에 ‘우리 지방의 지형도 만들기’, ‘자연재해 방지활동과 환경보호’ 내용이 들어간 것은 교과목의 특성 또는 내용구성의 원칙과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¹⁹ 2학년 ‘물과 공기가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현상,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 ‘조선지도에서 ~ 자기 지방의 산과 벌에서의 생물다양성, 자연부원의 리용과 보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학년 ‘조선지도에서 ~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실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5학년 ‘주위 환경이 오염되는 현상을 찾을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세우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구성은 환경지리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지리 내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리 교육 및 세계지리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고급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 서두에(3쪽) ‘국토와 자원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국토건설 총계획을 바로세우기 위한 공정입니다’라는 국토개발과 관련된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국토개발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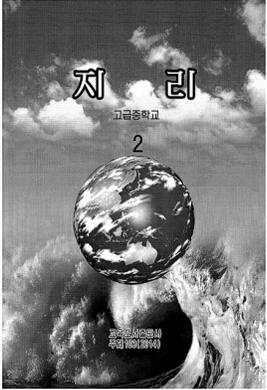
경제정책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2013년 5월 29일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⁰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라는 경제개발구법의 사명을 제시하고(제1조),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경제개발구의 유형을 명시하였다(제2조).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과 같은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제4조) 경제개발구법으로 제정하면서 세계경제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구성 체계 분석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구성 체계의 특징은 가장 먼저 교과서 표지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개정 전 지리 교과서 표지는 단순한 지구본 이미지였던 반면, 개정 후의 표지는 역동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지구의 위성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담긴 학습내용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그림 3).

²⁰ 2011년 「환경보호법」을 수정한 북한정권은 2013년도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자연보호구법」(2013 수정·보완), 「대기오염방지법」(2013 수정·보완), 「하천법」(2013년 수정·보완), 「대기오염방지법」(2013년 수정·보완), 「산림법」(2015 수정·보완) 등 환경과 관련 법령들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http://www.unilaw.go.kr/search/totalsearch.do#>> (검색일: 2019.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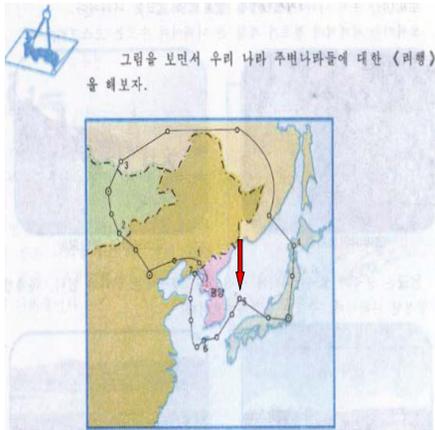
〈그림 3〉 개정 전, 후 지리 교과서 표지

구분	2003년 교육과정	변동	2013년 교육과정
학년	중학교 3학년		고급중학교 2학년
표지		⇒	

개정 전, 중학교 3학년 지리 교과서는 모든 단원의 학습내용이 각 대륙별로 위치, 지형, 기후, 자원, 주민, 경제 등 계통지리 형식으로 약 130쪽의 방대한 분량과 많은 텍스트로 채워져 있으며, 대륙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세계지리 체제이다. 특히, 제6장의 오세안주와 량극지방을 제외한다면, 각 장별로 대륙을 제시하고 제 1절이 ‘자연지리적 특징’, 제2절이 ‘주민과 경제’ 등의 형식적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내용구성 또한 사실적 지식을 나열하고 있고, 지역 구분 방식에 있어서도 대륙 중심의 지리적 접근방식을 보인다. 서술 방식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지향하고, 각 대륙 서술 시 사회주의 국가가 먼저 다뤄진 이후에 상세한 내용 기술을 하고 있다.

반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에 대한 분량은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개정 전에는 중학교 3학년 세계지리를 지역별로 다루었다면, 개정 초급중학교 1학년 지리 교과서 제2장 3절에서 ‘땅이 넓니 바다가 넓니?’, 초급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 제4장 제2절에서 ‘우리나라 주변나라들’, 초급중학교 3학년 지리 교과서 제3장 제4절에서 ‘우리나라 주변지역 동남아시아’와 같이 초급중학교 수준에서는 적은 분량으로 세계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반면, 고급중학교에서 2학년 지리 교과서 제3장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는 세계지리를 주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4〉 '주변국 여행'에 포함된 독도



〈그림 5〉 동남아시아 정치지도



출처: (좌) 조선지리(초급중학교 2학년용) p. 74, (우) 조선지리(초급중학교 3학년용) p. 8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급중학교 1학년 제2장 3절 ‘땅이 넓니 바다가 넓니?’ 단원은 4페이지 분량이며, 초급중학교 2학년 제4장 제2절 ‘우리나라 주변나라들’은 5페이지 분량으로 한반도의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 몽골, 일본에 대하여 인구와 수도를 이미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주변국 여행’이라는 복습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을 거쳐 독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여행’ 도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그림 4). 이러한 여행 경로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이 세계지리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데, 관광개발 투자로 북한경제출구를 모색하는 김정은정권이 국제관광개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초급중학교 3학년 제3장 제4절에서 ‘우리나라 주변지역 동남아시아’라는 제목의 동남아시아 지역지리 내용이 12쪽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다(그림 5).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며, 이들 국가의 기후, 강수량, 식생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며, 화산, 지진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 태국, 베트남, 미얀마는 열대작물 등 농업경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싱가포르의 수도, 미얀마와 태국은 불교사원,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사진으로만 소개하고 있다.

그 밖의 세계지리에 대한 내용은 고급중학교 2학년에서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뤄진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제1장과 제2장은 국내의 자연지리와 자연환경보호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마지막 3장에서 세계지리를 다루는데, 개정 전 교육과

정에 비하면 분량이 많이 축소되었다. 제1절에서 아시아주를 다루는데 주로 기후와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과 호수, 자원, 인종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2절에서 세계 8개의 일부 국가만 소개하고 있는데, 대륙의 위치와 기후, 자연조건과 자원, 경제를 연계하여 기술하였다. 그 밖의 추가되는 내용은 북한이 인식하는 국가별 대외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개정 전 지리교육은 자연지리적 특성을 나열하는 사실적 지식과 대륙 중심의 지리적 접근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던 반면, 개정된 지리 교과서의 세계 지리 내용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사진 이미지를 추가하여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화되는 환경과 자연, 그리고 국토개발과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개발을 모색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이 반영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²¹

IV.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북한의 대외관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교수·학습자료로서 학생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게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학습자료이다.²² 북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을 통해 소개되는 세계 여러 국가들을 보면, 북한이 바라보는 국가별 인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장에서는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반영된 북한의 대외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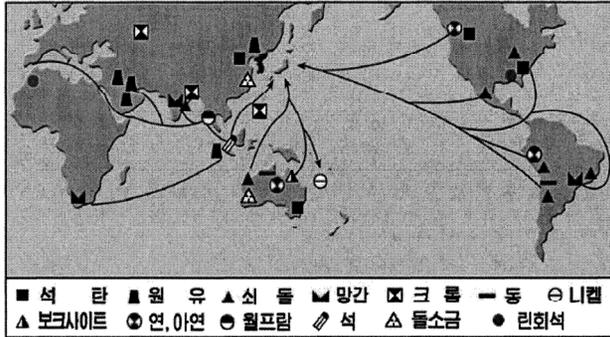
세계지리 내용의 사례 국가는 총 8개국 이 선정되어 있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 다

²¹ 2013 개정 북한의 지리 교과서는 그 이전에 비해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기존의 교과서는 작은 판형에 작은 글씨체의 많은 분량의 본문, 그리고 흑백의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 자료가 수록된 대학교재 형식이었다면, 2013 개정 교과서는 텍스트의 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사진, 삽화, 지도 등 시각 자료가 천연색으로 바뀌었으며, 지도의 크기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대폭 확대되었다(이상관·최희·임은진, “2013 개정 북한 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17), p. 120). 또한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자료가 지도 위주였다면, 개정 교과서에 포함된 학습 자료는 그 종류와 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 형태의 변화는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탐구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교수, 자립적인 학습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교수형태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85). 남한에서는 작은 판형에 많은 양의 본문, 그리고 흑백의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지리 교과서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무렵에 오늘날과 같이 판형도 커지고 천연색의 확대된 이미지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로 바뀌었다.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²² 박선미·우선영,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사회과교육』, 제48권 제4호 (2009), pp. 19~34.

뤄진다. 중국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과 산을 사이에 두고 잇닿아 있는 ‘이웃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지하자원(석탄, 철, 원유, 망간, 몰리브덴, 동, 연, 아연)이 많이 묻혀있는 국가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사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북·중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예컨대, 당시에 중국은 미국 등 북한의 비핵화 당사자들과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에 대해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자제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듯 중국 관련 내용은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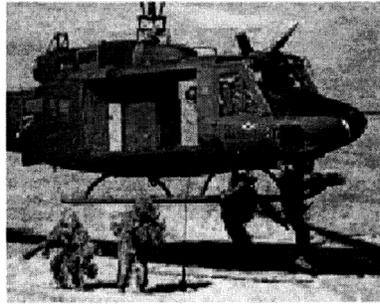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학습자료



자원이 부족한 나라
 (일본의 주요자원수입)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군국화로 절발습지는 나라
 (일본 《자위대》의 군사연습소동)

출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p. 62

²³ 하지만, 최근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직전 무렵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일본에 관해서는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도 실제로는 대단히 불편한 국가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순서로 다루고 있다. 영토의 8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로서 대공업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제는 대외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기술하고 있다(그림 6). 즉, 지형적 특성과 지하자원 부족으로 지난날에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오늘도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기술하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대동아공영권>의 허황한 꿈을 꾸는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그림 6). 특히, 아베 정권의 군국화의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훈련 사진을 제시하며, [복습문제]에서 <지진>, <화산>, <자원>, <군국주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견해가 들어가도록 글을 써서 발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섬나라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는 국가의 이미지와 군사연습소동으로 국군화를 꿈꾸는 일본 침략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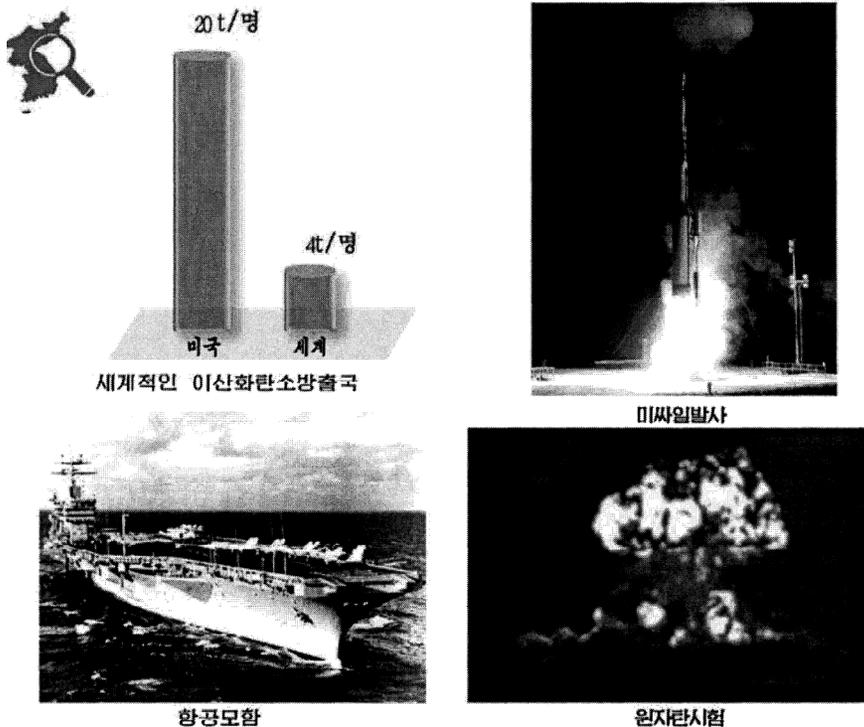
러시아는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시아주 북부와 유럽주의 동부에 위치하고 10개의 주변국들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으로 지형과 함께 수산자원이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며 러시아 경제의 기본이 원유나, 천연가스, 금속, 우주항공, 핵에너지공업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보다 비교적 많은 분량이지만 주로 지리적인 특징이나 자연조건과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3페이지 분량의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러시아의 지형과 기후적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시베리아철도와 우주발사장 사진까지 첨부하여 러시아의 우주항공 산업발전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군수품생산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 경제의 명맥은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에 장악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도시이고, 뉴욕은 미국자본가들의 소굴이라고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가장 극심한 사회라고 기술하였다. 이 부분까지는 개정 전 교육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 전 교과서에는 미국의 농업지역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가 유일한 학습자료

였는데, 개정 교과서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그래프 자료가 추가된 것이 개정 전 교과서 내용 구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국’으로서 미국과 세계를 비교한 도표를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소개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문제를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미국은 전쟁을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등 군국주의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여러 장을 제시하였다(그림 7).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후 ‘세계인민들이 미국을 세계 식량위기를 조장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복습문제]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북한이 미국의 조작에 의해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7〉 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학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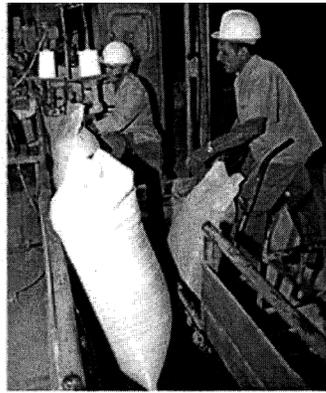
출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p. 79

반면, 북한과의 ‘친선국가’인 쿠바(쿠바)에 대해서는 쇠돌, 니켈, 망간, 원유, 크롬 등 세계적으로 비교적 지하자원이 많은 편이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로 지금도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건설에 힘쓰는 국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개정 교육과정 내용은 비교적 많은 시각자료를 추가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주의를 다그치는 쿠바의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습활동에서 쿠바 대륙붕, 해협 등을 사례로 들면서 북한과의 유사성을 비교·강조하고 있다. [복습문제]에는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사탕수수재배에 유리한 자연조건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쿠바 경제를 기후조건 및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쿠바를 주요 국가로 선정하여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은 북한이 닮고 싶은 국가로서 쿠바를 은유적으로 선정한 것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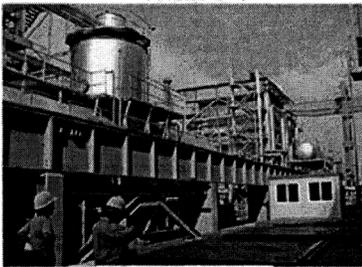
〈그림 8〉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쿠바의 이미지



담배잎따기



세멘트생산



화력발전소



수도 아바나

출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p. 75

이집트의 경우, 4페이지 분량으로 사막, 수에즈운하, 닐강유역 등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자원을 빼앗긴 국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프리카주 이집트 분량이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국가에 관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의 자연지리적 특징을 소개하며, 주로 아프리카주에 분포하는 ‘큰 강과 이름난 호수’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종 구성과 경제 내용은 소략적으로 다루었다(그림 9).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는 아프리카주를 대표하여 이집트를 소개하면서, “영국,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수십만명의 이집트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이 운하를 11년 간 건설하였으며, 이것을 틀어쥐고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원유를 비롯한 많은 자원을 약탈해갔다.”라고 기술하면서 과거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있던 조선과 강제 동원되었던 북한인민들의 역사도 이집트의 역사와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이집트의 ORASCOM 회사가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합작형태로 북한에 투자한 기업으로 이동통신망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여 이집트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IT관련 ‘정보기술’ 개편과목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그림 1) 정보기술교육의 강조와 이집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개정 전과 후의 아프리카주 관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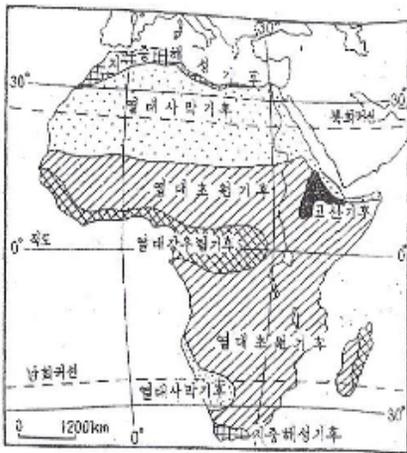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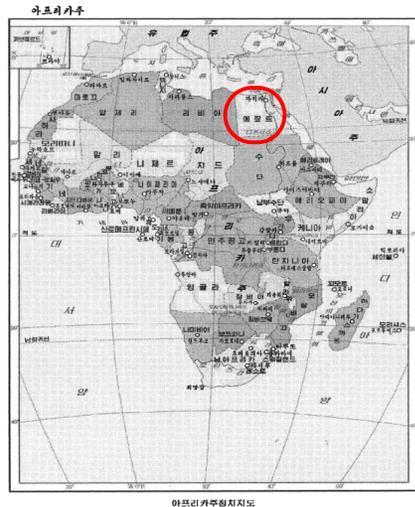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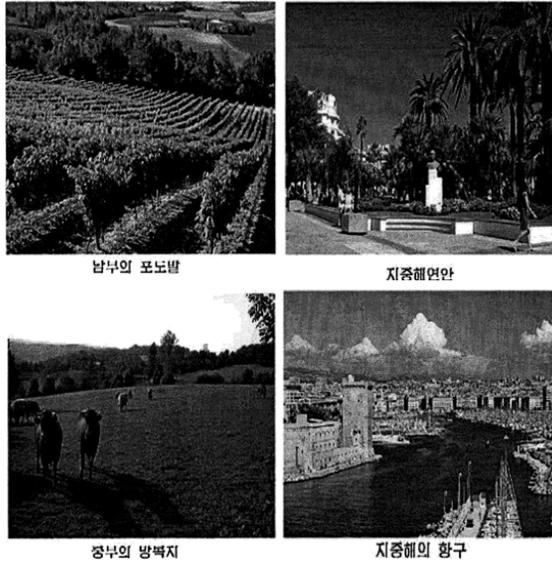
그림 3-3. 아프리카주 기후구



출처: (좌) 지리(중학교3) 2005년 p. 63, (우)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2014년 p. 50

서유럽에 위치한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에서의 위치와 국가의 면적, 지형, 기후, 자원, 공업과 농업, 수도 순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공업과 농업이 발전된 나라이며, 주요 농축산물수출국’이라고 소개하며 남부의 포도밭과 중부의 방목지 사진을 첨부하였다(그림 10). 또한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난 관광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생산의

〈그림 10〉 농업과 공업이 발전한 나라 프랑스



출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pp. 68~69

중심지’라고 기술하였는데, 개정 전 교과서에서²⁴ 기술된 내용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구가 많은 도시(215만 명)이다.’는 삭제되었다. 이러한 교과 내용 변화에는 김정은 정권에서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관광분야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관광문화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 국가임에도 8개 국가 중에 사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2002년)과 독일(2001년)이 북한과의 국교관계를 체결하였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프랑스와의 교류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민간기업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²⁵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의 경우, 수자원과 기계공업, 커피의 생산지, 축구의 나라 등의 내용을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브라질 열대우림은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적 산림난벌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북한의 환경보존을 강조하고 있으며,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²⁴ 명용범, 『지리(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5), p. 53.

²⁵ 최희·이상균, “한국 지리 교과서 속에 나타난 프랑스의 국가이미지,” 『한국지리학회지』, 제5권 3호 (2016), p. 236.

이 체육 강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축구 강국으로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정 전 세계지리 교과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개별 국가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특성과 고유성이 아닌 미국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가에 근거하여 그 나라를 평가하였으며, 과거의 피식민지배와 현재 저개발 국가의 상황으로 남아 있는 원인을 제국주의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개정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은 개정 전 교과서의 내용구성 관점과 대동소이하나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제국주의와 친선국가'로 나누어 서술하는 동시에 경제적 특성, 사회문제, 환경오염 및 파괴 등에 관한 설명도 '제국주의 또는 친선국가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핵 이슈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권 및 교육당국의 대외관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개정된 세계지리 내용은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정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정된 세계지리 내용은 양적으로 개정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지리교육 시수의 감소와 직결된다. 2005년에는 초급중학교(중학교 저학년)의 연간 지리수업 시수가 210시간(도시), 90시간(농촌), 고급중학교(중학교 고학년)의 연간 지리수업 시수는 90시간(도시), 118시간(농촌)이었던 것이 2013 개정 이후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수업시수가 각각 102시간과 81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김정은 관련 교과목 신설, 지리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지구과학 영역의 분리로 인한 시수 감소, 그리고 정보기술 및 기초기술 과목 개편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정된 세계지리 내용의 분량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더 이상 다루지 못하는 세계의 지역들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 집필진들은 대표적인 국가로 선정된 '8개 나라들을 학습하면서 임의의 다른 지역과 나라들의 자연, 경제,

문화생활의 특징을 찾고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자학습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 및 국가들에 관한 학습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방식은 개정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전에는 세계지리 내용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대륙별로 구성된 지역지리 형식이었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초급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가까운 나라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절 수준에서 간략하게 다룬 후에 고급중학교 2학년에서는 대륙별로 대표적인 국가 1~3개를 선정하여 구성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 방식은 학년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의 계열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급중학교 수준에서는 가까운 국가 및 지역을 사례로 최소한의 내용을 다루게 한 후에 고급중학교 수준에서는 먼 나라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기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개정된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향토조사, 환경보호, 그리고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학습내용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세계지리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 즉, 고급중학교 2학년에 수록된 세계지리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연환경과 경제적 측면이 대응되는 형식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상의 관점에 따라 세계에 관한 학습내용이 시작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학습의 측면에서 자연 및 환경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세계지리 내용구성은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정된 지리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은 개정 전에 비해 천연색 시각자료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은 글씨체의 본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의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던 김정은의 담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파악된다. 세계지리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미지는 천연색 시각자료를 통해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섯째, 고급중학교 2학년 세계지리 내용에 포함된 주요 8개국들은 북한과의 우호적, 적대적 관계에 따라 '제국주의 또는 친선국가'로 나누어 서술하는 동시에 경제적 특성, 사회문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제국주의 또는 친선국가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나 미국에 관해서는 극도로 부정

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쿠바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봉쇄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건설에 힘쓰는 국가라고 소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집트의 경우는 과거에 이집트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 또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했던 역사와 동일시시키려는 동시에 이동통신 기술 등 발전적인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비동맹 우호국가의 긍정적인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던 당시 북·중 관계가 소원했던 상황이 반영된 듯 중국에 관한 학습내용은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정된 북한의 세계지리 학습내용은 제시된 국가 및 세계를 자연환경과 경제적 측면이 대응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에 선정된 8개국은 북한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따라 우호적·적대적 국가의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프랑스나 브라질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특징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기술하면서 비교적 중립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 제출: 10월 21일 ■ 심사: 11월 11일 ■ 채택: 11월 27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진숙·김민성·박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연구(II):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 이상균. 『프랑스 지리교육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북한 자료>

- 『로동신문』.
- 림일·김성민·박광철·승금청·최현수·지국철. 『조선지리(초급중학교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 명용법. 『지리(중학교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5.

- 박광철·립일·김정현·한승철·최현수. 『조선지리(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 박광철·최현수·지국철·김성민·김정현. 『조선지리(초급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5.
- 승금철·신정심·백현성·립일·박광철. 『지리(고급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5.
- 지국철·승금철·박광철·립일·최현수. 『지리(고급중학교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 최현수·지국철·승금철·박광철·김성민·김도성. 『지리(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2. 논문

- 김민성·김진숙·박수련. “북한의 3013년 개정 지리 교육과정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5권 3호, 2017.
- 남상준.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 박선미·우선영.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8권 4호, 2009.
- 손용택. “남·북한 지리 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 북미관.” 『지리학연구』. 제38권 3호, 2004.
- 손용택.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 안종욱. “국가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 내용체계의 역사적 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상균·권정화. “김정은 시대 북한 지리 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내용구성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5권 3호, 2017.
- 이상균·최희·임은진. “2013 개정 북한 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17.
- 임선린. “2013년 간행 북한 지리 교과서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희·이상균. “한국 지리 교과서 속에 나타난 프랑스의 국가이미지.” 『한국지리학회지』. 제5권 3호, 2016.
- 한봉희.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제26권, 1993.

3. 기타자료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Abstract

Analysis of Content Composition and Perception of the Outside World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s in North Korea at the Era of Jung-Eun Kim

Yi, Saangkyun, Choi, Hee and Kim, Eunjin

Whi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being spotlighted around the worl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s perception toward the external world by analyzing their geography textbooks revised on the early period of Jung Eun Kim's regim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orld geography textbook for an inferior middle school-level covered nearby regions an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dvanced middle school-level textbook covered regions and countries that are far distant, showing the classification in systematic composition of the context. Second, the contents of the texts generally were composed of natural environments in relationship to economic aspects. Ultimately, reflected in the world geography texts we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interests in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world geography contents revis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Jung Eun Kim included visual materials extensively in full colors. This shows Kim's willingness to track the global trend in educa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Fourth,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 for the second grade in the advanced middle-level school, the textbook expressed the images of 8 countries in radical ways depending on the friendly or hosti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short, the world geography education in North Korea suggested a perspective in classifying various regions and countries into two, based on whether they are friendly or hostile to North Korea.

Key Words: Kim Jung-Eun Era, Geography Education in the North Korea, Geography Textbooks, World Geography, Economic Development, Perception of the Outside World